다민족 다문화 시대

㊦ '코시안' 등 정치세력화?

소수자로 고립시킬 땐 심각한 갈등 부를 수도

'코시안'(Kosian·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일컫는 말)을 중심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혼혈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0여 년 후에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흑인과 히스패닉(중남미계 이주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동남아계 혼혈인 코시안을 주축으로 외국핏줄을 가진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 데 뭉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전망은 한국 내에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자와 이들로부터 태어난 혼혈인 등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근거를 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3만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혼혈인구가 오는 2020년께에는 무려 160여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은 국제결혼율이 매년 상승해 빠른 시일 내에 대만 수준인 32%까지 치솟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2020년엔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 그리고 신생아 3명 중 1명이 혼혈이 된다. 한국인 배우자와 친지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이들 혼혈·외국인 집단이 한국의 정책 수립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이 같은 계산은 말 그대로 '전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국제결혼 등이 급증하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큰 변화가 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가 같은 의견이다.

전남지역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 30여 명이 이달 초 나주교회에서 열린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에 참가, 진지한 자세로 한글을 익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내 혼혈인구 증가 2020년 160여만명 추산

정책수립 영향·권익보호 차원 집단행동 가능성

조선대학교 오수열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전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혼혈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도 결국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세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이어 "좋고 나쁨을 떠나 이 같은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도 단일민족이라는 혈통적 순수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혼혈인들도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열린 마음을 갖고 제도와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정치사회학부)는 "한국 내 혼혈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들이 특정지역에 한 데 모여 살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특정지역에 베트남이 외가인 혼혈인이 많이 거주한다면 지자체장들도 베트남과 교류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들 혼혈인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을 개발하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 교수는 이어 "소수자들은 세계 어디서나 결집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그런 만큼 이들을 고립시킬 경우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적지 않다"며 "한국인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혼혈인 또는 외국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외국인·혼혈인 차별실태

'왕따' 일쑤…폭력·자녀교육문제도 심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혼혈인들은 크고 작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문화적 차이나 피부색깔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속 집단으로부터 왕따와 무시를 당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인으로 편입된 외국인은 물론 '코시안'과 잠시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 노동자들 모두에게 있어서 차별은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33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어려움'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가 '외국인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부정적 태도'를 지적했다. 중복답변을 허용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또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 및 폭력행위'라는 답변이 24.1%,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과 다른 대우'라는 답변도 20.5%를 차지했다.

국제결혼을 통해 전남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차별대우, 경제적 빈곤 그리고 혼혈자녀 문제 등으로 고통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전남도가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22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내 가운데 1천6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아내가 남편과 싸우는 이유는 '생활방식 차이'가 25.5%로 가장 많았다. 또 10명 중 1명 이상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생활비나 용돈을 받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외출이 금지당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들은 특히 자녀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외국인 아내의 14.8%가 '자녀가 집단 따돌림(왕따)을 받을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 따돌림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의 26.6%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1.5%는 '외모가 달라서', 21.4%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서' 그리고 12.6%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라고 각각 답했다.

결국,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자녀는 상당수가 집단따돌림이나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제 언 '다인종·다문화 사회' 어떻게 대비하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가치 창조 열린마음으로 제도·법률 정비를"

임채완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인종·다문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평화롭고 안정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월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의 18%가 농촌에 살고 있으며, 농촌 총각 4명 중 1명의 배우자는 통계상으로 외국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당한 부분 '신부수입'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의 급증은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다. 상당한 지역의 농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도인 전라남도는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한국은 현재의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계속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필요하며, 이들이 한국 내 정착하여 2세를 생산할 경우 장기적으로 혼혈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일부 중소기업 업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이러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도 단일민족의 신화가 깨지고 본격적인 다인종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초기 진입단계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심각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필요한 대책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필요한 덕목인 포용 및 관용,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사회공동체 등의 가치관과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혼혈인의 인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결혼 가정과 혼혈인들은 차별, 멸시, 따돌림, 빈곤, 질병, 그리고 낮은 교육기회 등 악순환의 환경에 처해 있다. 정부는 우선 이들의 교육, 인권, 경제환경, 노동, 건강, 그리고 복지 등의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혼혈인에 대한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혼혈아를 위한 놀이방과 공부방 프로그램,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성과 다문화 수용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며, 그들의 사회활동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지원들은 다인종사회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종간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민족적 정체성과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혼혈인에게 배타적·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거주국의 온전한 국민으로 적응하고 융화하면서 그들의 가슴에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